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인천전자랜드 프로농구 한우스폰서데이 (인천삼산월드 체육관)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울포유 공동 한우불고기 기부행사 (다일공동체)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한우대축제 (대명리조트) 20일~22일
22	23	24	25		26	27
29	30	31				



*한 달 동안 곁에 두고 달력으로 활용하세요!

한우자조금

2019
12

본 소식지는
한우자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4

찾이슈
'2019년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제3차 대의원회'
열려

08

후계농을 찾아서
화준농장 송화준 대표

10

방송에서 만난 한우
전문가 자문단의 활약으로
신뢰도 상승!

12

소식
'2019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
개최

26

한우 시황
11월 한우가격 및
출하·사육 동향



Contents

2019.12 vol.170

04

찾이슈
'2019년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제3차 대의원회' 열려

08

후계농을 찾아서
화준농장
송화준 대표

10

방송에서 만난 한우
전문가 자문단의 활약으로
신뢰도 상승!

12

소식①
'2019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
개최

14

소식②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및
'후계자 육성교육' 실시

16

소식③
'2019년도 한우농가
해외연수' 독일·프랑스 방문

18

소식④
'음식점 원산지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

소식⑤
'메가쇼 2019 시즌2' 및
'코엑스 푸드윅' 참여

21

소식⑥
'2019년 제2차 사료성분분석'
결과 발표

22

소식⑦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 간담회
개최

24

아하 그렇군요
5G가 뭐길래

25

건강 상담소
좋은 콜레스테롤
vs 나쁜 콜레스테롤

26

한우 시황
11월 한우가격 및
출하·사육 동향

발행일 2019년 12월 9일 발행인 민경천 발행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서울시 서초구 서리풀 3길 20-1(서초동) 커피아화관 2층 홍보·유통부
연락처 Tel.02.522.3606 Fax.02.522.4314 홈페이지 www.hanwooboard.or.kr 등록번호 서초 라11645 기획·디자인 디자인신화 02.324.6852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기사와 사진 등은 무단으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한우농가 여러분! 2019년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10만 한우농가 여러분!

2019년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우리 한우를 알릴 수 있고

우리 한우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2020년에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믿음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우리 한우를 널리 알리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11월 1일

국회한우는

한우 먹는 날

관리위원회



대의원회



‘2019년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제3차 대의원회’ 열려

2020년 예산안 약 339억 4,205만 원 의결

한우자조금 2020년 예산안이 ‘2019년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와 ‘제3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차례로 통과했다.

2020년 한우자조금 예산은 올해보다 11.3% 줄어든 339억 4,205만 원으로 수립되었다.

예산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되고 나면,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 운영에 투입된다.

‘2019년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 성료

지난 11월 12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제4차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열렸다. 관리위원회에는 한우자조금 민정천 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을 비롯해 총 25명 중 19명의 관리위원이 참석하며 성원되었다. 한우자조금 민정천 위원장은 “우리 한우산업의 발전과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리위원회는 △2019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적 △2019년 한우자조금 납입현황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로 시작됐다.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미납도축장에 대한 회수 현황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고소고발 및 미납금 납부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그 외에도 한우수출사업, 조사용역사업, 한우농가 해외연수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도 진행됐다. 의결 사항으로는 △한우자조금 제규정 개정(안)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안) 등이 있었다.

이날 관리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신중한 검토 속에 일부 사업은 수정·가결되었다.

2020년 총 조성금액은 2019년보다 11.3% 감소한 339억 4,205만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소비홍보 24.1%, 교육 및 정보 제공 18.8%, 수급안정 15.2% 등으로 책정되었다.

한편, 제4차 관리위원회를 마친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11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강원, 부산·경남·울산, 경북, 충북, 광



주·전남, 전북, 충남, 제주를 방문해 도별 대의원 및 지도자 대상 사업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인천·경기 지역은 ASF 발생·경계 지역으로 취소되었다.



‘2019년 제3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성료

11월 25일에는 대전 KT연수원에서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249명중 173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다. 송무찬 대의원 의장은 “월동 준비로 바쁜 와중에 한우산업의 내년을 위해 자리해주어서 감사하다”고 개회사를 통해 전했으며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정부의 WTO 개도국 포기 등으로 국내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우리농가의 권익을 스스로 지켜나가기 위해 미경산우 비육사업, 협회가 생산하는 OEM 사료 이용, SNS청원 등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정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투명한 예산 운영은 물론 자조금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농협,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으며 2020년 사업계획(안)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전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2019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실적 △2019년 한우자조금 납입현황 △2019년 한우자조금 주요사업 추진현황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전차 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의 보고사항을 원안 접수했으며, 의결사항인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 붙임1) 제2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사록(P.6~29)



예산(안)과 △한우자조금 선거 관련 규정 개정(안)을 일부 수정·가결하였다.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여성한우인과 청년 후계자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후계자 및 여성한우인 교육 사업」을 「여성한우인·청년 후계자 양성교육 및 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 7,000만 원을 예비비를 이용하여 증액하였다. 또한, 내년 말 제5기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선거 관련 업무에 혼선을 방지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구체화 및 확대 △피선거권의 제한(임원 중복 출마 금지·위원장의 직무 정지 등) 규정 신설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운동방법 명문화 등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비롯한 의장·관리위원·관리위원장·감사 선거 규정을 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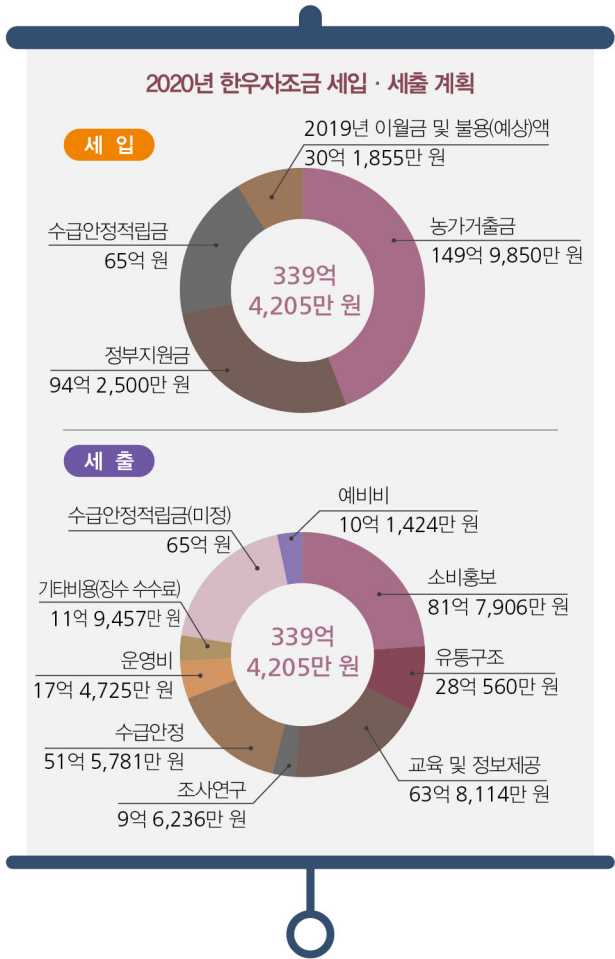


주요 사업별 예산 증감은?

폐지사업은 한우협회 20주년 기념행사 예산 1건이며, 신규사업은 △한우 정책 현장 활동비 △환경 등 축산규제해소 조사연구 △제5기 대의원선거비 등 총 3건이다.

한우 정책 현장 활동비의 경우 한우산업의 정책 전파와 현장정보의 소통을 위한 활동비로 총 3억 원이며, 환경 등 축산규제해소 조사연구는 축산환경 관련 규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증액된 사업은 TV와 라디오 광고, 방송프로그램협찬, 디지털 광고, 오프라인이벤트, 통화연결음서비스, 지역사회공헌 등이다. 이외에도 한우수출지원, OEM사료생산지원, 한우정책연구소 예산 등이 증액됐다. 반면, 신문·잡지광고, 옥외광고, 한우유통투명화정보제공, 한우농가해외연수, 한우자조금 소식지 발행, 한우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은 예산이 줄었다.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 후 사업내용과 예산이 확정된다.

2020년 자조금 예산 규모 약 339억원

관리위원회와 대의원회를 통과한 '2019년 한우자조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도 한우자조금 세입은 총 339억 4,205만 원이다. 세부 사항으로는 △농가거출금 149억 9,850만 원 △수급안정적립금 65억 원 △정부지원금 94억 2,500만 원 △2019년 이월금 10억 6,797만 원 △2019년 불용(예상)액 19억 5,058만 원이다. 세입에 맞춘 세출은 △소비홍보 81억 7,906만 원 △유통구조 28억 560만 원 △교육 및 정보제공 63억 8,114만 원 △조사연구 9억 6,236만 원 △수급안정 51억 5,781만 원 △운영비 17억 4,725만 원 △기타비용(징수 수수료) 11억 9,457만 원 △예비비 10억 1,424만 원 등이다. △수급안정적립금 65억 원은 향후 한우유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논의 후 결과에 따라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0년도 한우자조금 예산안은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부문별 중점추진방향은?

홍보 부문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유튜브 영상 콘텐츠 제작 및 활용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소비자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유튜브를 활용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궁금증을 충족시키고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한다. 그 과정에서 이미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한우자조금의 전문가 자문단(학계, 의학, 한의학, 마케팅)을 활용해 콘텐츠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한우자조금이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프러스친구, 직거래장터의 소비자 데이터 등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

2020년 한우산업 전망

- ▶ 2020년 한우생산 및 수급전망
 - 사육 313만 두 예상**
2019년보다(305만 두(E)) 2.6% 증가 전망
 - 도축 77만 두 예상**
2019년 대비 (75.5만 두(E)) 2.0% 증가 전망
 - 가격 평균도매가격(kg당) 1만 7,300원~1만 7,600원 전망**
2019년 대비 9월기준(1만 7,823원) 하락 전망
 - 수입 소고기 수입량 약 41.5만t**
2019년보다 감소(42만(E)) 전망

- ▶ 한우 소비환경
 - 최저임금제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 혼인을 저하, 출산율 감소, 고령 인구 등 인구 유형이 바뀔에 따라 간편하고 건강한 음식 섭취 소비 형태로 변화 가속
 - 소비자들이 생활습관, 소비패턴 등 트렌드 변화에 따른 홍보 필요성 증대
 - 가성비와 품질보다는 가치와 체험을 중요시하는 소비
 - 밀레니얼 세대 그 중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비성향 변화
 - 전통적인 매스미디어에서 1인 방송국, SNS 등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 방안 모색



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수입육과의 차별성을 홍보하는 홍보컨텐츠를 개발하고, 저지방 부위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 전개로 신규 소비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야구·농구 등 인기 스포츠와 연계하여 한우의 이미지를 높이고, 한우의 구매력이 높은 실질 소비자가 주로 즐기는 스포츠와의 연계 마케팅으로 한우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노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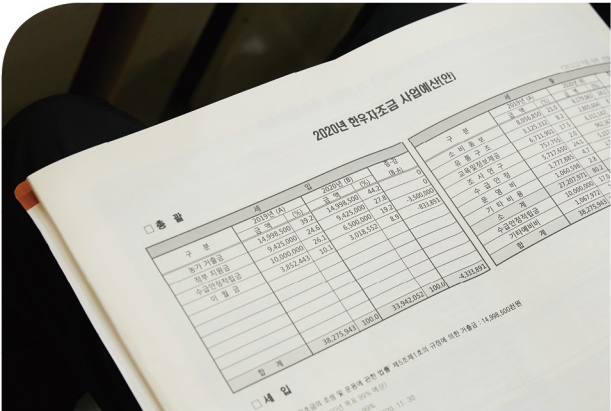
유통 부문에서는 설·추석명절 직거래장터 확대 개최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 소비 촉진 및 가격안정화를 도모하며,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11월 1일)' 연계를 통한 전국 동시다발적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체와의 프로모션 이벤트를 기획 추진하여 유통지배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출국 현지 실수요층 대상 이벤트 및 프로모션 추진을 통해 수출량을 확대 시키고 수출국 현지의 유명인사 등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홍보이벤트를 추진해 언론 및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조사 부문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해 한우농가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한우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후계축산인과 여성한우인 교육을 실시한다. 한우농가 종합컨설팅을 통해 경영안정 및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육성에 기여한다.

한우고기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구나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축산 환경과 관련된 규제 및 제재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용역 등도 필요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한우생산과잉 방지를 추진해 **수급안정**을 도모한다. 📊



2020년 한우자조금 사업 기본방향



2020 목표

-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한 한우가격 안정 도모
- 한우 시장점유율 확대
- 한우생산성 향상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소비홍보

- 수입육 및 타축종 공세에 대응하는 한우의 가치 및 우수성 홍보
- 모바일 및 온라인 홍보강화를 통한 신규 소비층 확보
- 소비자의 가격저항을 해소하는 저렴한 곳 발굴로 소비 촉진에 기여
- 시즌별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으로 통합적 홍보 추진



유통구조개선

- 원산지 표시제도 악용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제도 개선 도모
- 우리한우판매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 기반 확보
- 수출국 내 실수요층 공략을 통한 수출시장 안정화



교육 및 정보제공

-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통한 농가 중심의 맞춤형 교육 진행
- 한우의 우수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확산



조사연구

- 한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 진행
- 한우고기 우수성 및 건강에 대한 과학적 우수성 지속 발굴
- 축산환경 규제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수급안정

- 비수기 집중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
-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 분위기 조성
- 사전적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 도모

화준

농장

송화준

대표



‘같이’의 가치 ‘함께’의 힘

너른 들판에 황금빛 물결이 일렁이는 벼골제
김제평야를 지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지평선이
보이는 전북 정읍 감곡면에 가면 화준농장이 있다.
아버지는 벼농사를, 아들은 한우농사를 하며 주변
사람들과 ‘같이’의 가치, ‘함께’의 힘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화준농장 송화준 대표를 만났다.

부모님의 벼농사와 병행하며 시작해

영농후계자들은 대체로 부모님 세대가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송화준 대표는 조금 다르다. 부모님은 김제평야에서 수도작(水稻作: 눈에 물을 대어 벼농사를 짓는 것)을 하였고, 송 대표는 수도작 영농후계자로 2002년도 한국농수산대학에 입학했다. 당시에 실습으로 미국 농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소를 처음 접하면서 한국에 돌아가면 한우를 사육해보기로 결심했다. “수도작과 병행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게 한우농장이예요. 벼농사는 계속 지키고 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한우 사육과 수도작을 겸하다 보면 조사료 수급에도 용이하고 생산비 절감에도 효과적입니다. 대신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벽 4시건 5시건 우선 현장

으로 나갑니다.” 이와 같은 우직한 성실함으로 처음에 번식우 10두로 시작해서 지금은 번식우 80두, 비육우 120두로 농장 규모를 키워냈다.

한우에 대해서는 송 대표는 늘 진심이다.

“한우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소중한 우리 한우들이 먹고 자는 문제에 늘 많은 신경을 씁니다. 많게는 하루에 50L의 물을 먹는 한우들에게 늘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일 1회 물통 청소를 하고 빗집도 세절해서 급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육성기 관리의 배합사료의 제한과 양질의



건초 무제한 급여로 건강하고 튼튼한 밀소를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송 대표도 처음부터 이처럼 승승장구했던 것은 아니다. 송 대표는 “한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말한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

한우농장을 1,300평 200두 규모로 키워내기까지 쉽지만은 않았다. 첫 축사는 좁았고, 열정은 가득했으나 미숙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많았습니다. 발정시기를 놓치는 건 다반사였고, 번식우를 사육했기 때문에 한우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 밀집사육이 되어버리기도 했고요.”

그러나 송화준 대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변에는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2013년에 전북한우육종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개개인의 농가로는 하기 힘든 일들이 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뭉치니 가능해 지더라고요. 사료 공동구매도 하고, 누가 농장을 비워야 할 때 서로 봐주기도 하고, 동물병원과 연계해서 송아지가 아플 때 전문인력을 보내주기도 하고요.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송 대표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농업이 다시 좋은 이미지로 제고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며 “한우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역에 큰 힘이 되는 좋은 선례가 되고 싶다. 선한 영향력을 주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젊은 한우인의 힘 보여줄 것

마침 취재를 위해 농장에 방문한 날, 한우들에게 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농장을 찾은 담당자들이 익숙한 듯 한우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송 대표는 그들을 향해 “이분들은 모두 우리 농장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두 팔 걷고 달려오는 한 식구”라며 웃었다.

“올해 2월에 우리농장에서 태어난 송아지가 매우 몸이 약해서 태어나자마자 희망이 없었어요. 그때 여기 계신 동물병원 수의사님과 제가 둘이 한팀이 되어서 그 송아지를 따뜻한 방에서 밤낮없이 치료한 덕에 지금은 건강하고 튼튼한 수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송화준 대표는 정부 지원 하에 설치했던 축산 스마트팜 디지털 통합시스템의 사양관리에 대한 효과를 보고 자비로 추가 센서 부착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번식우를 키우면서 가장 큰 애로 사항이 한우의 발정 시기 체크와 정확한 분만 시기 예측이었는데요, 스마트팜을 도입하면서 시대가 바뀌고 축산업이 똑똑해지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마음 풀이고, 지키고 서 있지 않아도 센서를 통해서 번식우들의 발정과 음수량 체온과 같은 특이사항을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을 받고, 저는 그걸 개체기록과 경영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하며 빈틈없는 농장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우들에게 국악을 틀어줘요(웃음). 우리 한우니까 우리 국악을 들으면 좋다고 하네요!”

한우인들과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지역의 한우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젊은 한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송화준 대표의 우직한 진심은 반드시 크게 빛을 발할 것이다.”



전문가 자문단의 활약으로 신뢰도 상승! 추운 날씨 이겨내는 한우의 힘!

코끝이 시려지는 계절,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따뜻한 보양식이 필요한 때다.
11월 방송에서는 우리한우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며 보양식으로 최고임을 알렸다.
각종 방송에서 신뢰도 높은 한우자조금의 전문가 자문단이 활약하며 대중들에게 한우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며 신뢰도를 상승시켰다.

1 MBC <생방송 오늘아침>
11월 1일 방송



한우, 어디까지 먹어봤니?

이날 방송에서는 한우의 다양한 레시피를 공개했다. 구워먹는 것뿐만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는 식재료임을 강조하며 고급스럽게 즐길 수 있는 코스요리로서의 한우요리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한우요리 방법을 방영했다. 코스로 즐기는 한우 한상차림에서는 한우 육회 타르타르, 한우 샌드 등의 요리를 선보였다. 집에서도 실패 없이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한우요리 비법에서는 일반 가정용 프라이팬을 이용해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는 비법에 대해 방송했다. 고기에 수분을 제거하고 충분한 밀간을 하는 것이 포인트임을 알려주고, 손가락으로 눌러서 익힌 정도를 알 수 있는 꿀팁을 공개했다. 특히 비선호 부위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국거리 부위를 구이용으로 변신시키는 법은 큰 호응을 얻었다.

2 KBS2 <생방송 아침이 좋다>
11월 12일 방송



맛과 영양을 잡으려면 한우 앞으로 가라!

한우자조금의 전문가 자문단인 박미경 한의사와 황인철 의사가 한우가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식품임을 알렸다. 보신이 필요할 때에도,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부족한 에너지 채워주는 한우의 매력을 알리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 한우로 '저지방 한우 다이어트 레시피'를 공개했다. 다이어트에는 기름기가 적은 우둔살, 안심, 채끝등심과 같은 부위들이 제격이며 생고기나 육회로 먹으면 한우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우의 무한 매력을 어필했다. 칼로리는 적고 영양은 짙 채운 부위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사태가 제격! 종아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태에는 소의 힘이 담겨 있다며 저지방 부위 사태로 만든 한우 수육, 채소를 곁들인 한우 보쌈 레시피를 공개해서 화제를 몰았다.

3 KBS2 <2TV 생생정보>
11월 14일 방송



우둔살의 변신!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

한우자조금이 개최한 제2회 전국한우요리 경연대회가 매스컴을 탔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이 한우 우둔살을 활용해서 다양한 조리법으로 한우창작요리를 완성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우둔살도 이만큼 맛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요리 재료로 선택된 한우 우둔살! 조리법을 몰라서 자주 구매하지 않는 우둔살이 놀라운 변신을 할 수 있음을 알렸다. 우둔살로 불고기를 만들어 멕시코 요리와 결합시킨 요리로 대상을 수상한 학생의 요리를 비롯해 이탈리아식 요리와 한국식 요리를 합쳐 새로운 요리를 선보이는 등 다양한 우둔살 레시피가 방송을 탔다. 상을 타지 못한 학생들도 수상과는 별개로 좋은 경험이었다며 "한우 우둔살이 얼마나 맛있는 부위인지를 깨달았다"고 말했다.

4 MBN <모던패밀리>
11월 15일 방송



젊은 오빠 임하룡, 설운도와 한우파티!

젊은 오빠 임하룡이 박치 탈출을 위해 설운도의 양평하우스를 방문했다. 설운도가 임하룡을 위해 정원에서 '한우 바비큐'를 대접하며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다. 설운도가 준비한 한우의 영롱한 빛깔에 지켜보는 패널들은 "저 정도면 그냥 육회로 먹어도 된다"며 입맛을 다시고 놀라워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설운도는 데뷔 37년만에 누군가를 위해 고기를 구워주는 것은 처음이라며 선배 임하룡에게 "어찌됐건 지금은 한우타임"이라고 한우를 권했고, 임하룡은 노화 예방과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한우를 먹어준다고 말했다. 영상을 보던 배우 박원숙 씨는 "나이 들수록 단백질 섭취해야 해서 한우를 먹어줘야 한다"며 한우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 및 효능에 대해서 알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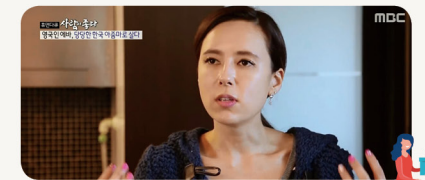
5 MBC <생방송 오늘저녁>
11월 20일 방송



한 끼 똑딱! 영양만점 한우국밥

코끝이 시리고 옷깃을 여미게 되는 추운 겨울이 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보양식으로 온 국민이 사랑하는 우윳빛 뽕안 자태의 한우곰탕이 전파를 탔다.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사랑 받은 한우곰탕을 소개하며 어르신들은 "추울 땐 이게 최고 보양식!"이라고 엄지를 치켜들었다. 한우의 뼈 사골, 스지, 도가니, 우족, 꼬리의 부위 설명과 건강에도 좋고 영양도 많은 보양식으로는 한우만한 게 없음을 강조했다. 한우자조금의 전문가 자문단인 박미경 한의사가 등장해 "동의보감에 의하면 한우가 당뇨와 부종을 낮게 하고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해 면역력 증진과 원기 회복에 좋다. 특히 사골 부위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들이나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다"고 소개했다.

6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11월 26일 방송



영국인 에바! 한우와 사랑에 빠지다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방송인 에바 포피엘 편에서 영국인 에바의 한우사랑이 전파를 탔다. '미녀들의 수다'에서 빼어난 미모와 유창한 한국어, 술직 담백한 말솜씨로 유명세를 얻어 인기 가도를 달렸다. 아이들과의 캠핑을 준비하며 한우를 잔뜩 꺼내는 모습을 보고 제작진이 "다이어트 중인데 고기를 먹어도 되냐"고 물었고 에바는 "단백질이니까 당연히 된다. 다이어트할 때나 기운이 없을 때 꼭 한우를 챙겨먹는다. 특히 기름기 없는 안심 부위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먹는다"고 답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아이들과 클론의 구준엽 씨와 함께 가평에서 한우꼬치, 한우 스테이크 등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각종 한우 요리를 소개하며 "한우는 아이들 성장기에도 좋다"고 말했다.



1

'2019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 개최 한우 품고 자라는 미래의 스타 요리사



"우리는 한우를 잘 키우는 법을 알 뿐, 우리 한우를 전 세계인들의 식탁에 올리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디 한우가 최고의 식재료임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알리는 훌륭한 요리사가 되십시오." 민경천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의 축하처럼 세계인의 식탁 위를 책임지겠다는 포부로 가득한 전국 각지에서 온 조리전공자 학생들이 모였다. 미래의 스타요리사가 될 장래가 유망한 학생들이 '한우'를 주제로 선의의 대결을 펼치는 현장을 찾았다.

제2회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 열려

전국의 '요리 수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조리기능장협회가 주관한 '2019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가 지난 11월 9일 서울 동부기술교육원에서 진행됐다. '한우고기를 이용한 창작요리'라는 주제로 열린 전국한우요리경연대회에는 미래의 스타 요리사들의 재능이 마음껏 펼쳐지는 꿈과 열정의 향연이었다.



한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 및 우수한 인재 발굴과 한우 조리 분야 발전을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는 한우자조금이 한우 우수성 정보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요리 체험 행사'를 진행했던 학교의 학생들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선발된 고등학교와 대학교 총 37명의 학생이 참가해 한우의 우둔 부위를 이용한 요리 경연을 펼쳤다.

아이디어 통통 튀는 창의적 레시피 대결

대학부와 고등부로 나누어서 펼쳐진 대회장에 학생들이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손가락 운동을 하며 긴장을 풀기도 하고 심호흡을 하기도 했다.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80분 동안 선보여야 하는 시간. 시젯바늘이 정각을 가리키고,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진행자의 말이 떨어지자 팬 달구는 소리, 고기를 다지는 도마질 소리, 믹서기로 재료를 가는 소리, 차-익 하는 불소리, 물소리 등 경연장이 온갖 맛있는 소리로 가득 찼다.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전통요리, 컨템포러리, 퓨전 등 장르에 제한이 없었던 만큼 한우 우둔 부위를 제외하고는 준비한 재료도 도구도 제각각이었다. 학생들이 이 경연대회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색의 재료를 준비한 한 참가자는 "한우는 그냥 먹어도 맛있다. 그래서 더욱 맛과 모양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었다"고 말했다. 학생들만이 생각할 수 있는 통통 튀는 창의적인 레시피들이 펼쳐졌다.

열정만큼은 모두가 대상!

경연이 시작되자 심사위원들도 바빠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조리명장 1호인 한춘섭 명장과 여성조리기능장 1호 이순옥 교수를 비롯해 총 5명의 요리 명인들이 심사를 맡았다. 심사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위생·전문성·맛·모양으로 나누어져 점수가 매겨졌다. 한춘섭 명장은 "학생 여러분이 한우요리 개발을 위해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들었다. 그만큼 긴장되겠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했으면 좋겠다. 최고의 요리가 탄생해서 여러분이 만든 음식이 세계인의 밥상에 올라가길 바란다"고 격려를 전했다. 심사위원들은 우리 학생들의 피나는 연구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 더욱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민국 조리업계 이끌어갈 인재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우 요리의 맛과 모양,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 끝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4명, 장려상 8명 총 15명에게 총 1,500만 원의 상금이 전달됐다. 한우



요리 경연작을 심사하는 동안에는 참가 학생들을 위해 롯데호텔 충주방장(조리총괄사무)인 김송기 명장의 '한우 요리 특성화 발굴' 특강이 진행돼 참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홍보영상도 방영되었다. 민경천 위원장은 "우리 학생 여러분은 한우자조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우자조금은 농가가 도축할 때마다 내는 돈이다. 소중한 자원이 모여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인다. 그런 소중한 돈으로 이 경연대회를 하게 됐음을 알려드리고 싶다. 우리 한우농가는 한우 기르는 것은 자신 있으나 요리는 자신 없다. 요리는 여러분의 몫이다. 대한민국 외식산업과 대한민국 한우의 위상을 높이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회의 대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은 '아보카도 퓨레 불고기 소스와 고르곤졸라 한우 퀘사디아' 요리를 선보인 서울디자인고등학교 정태형 학생이 수상했다. 정태형 학생은 "멕시코의 아보카도를 이용한 퓨레와 한국의 대표적인 불고기 소스의 조화를 생각한 퓨전요리를 만들었는데 대상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한우의 맛을 살린 다양한 레시피를 개발해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경천 한우자조금 위원장은 "이번 대회에 참가한 우리 학생들이 우수한 요리사로 성장해 우리 한우를 식재료 한 좋은 레시피를 널리 알려주시길 기대한다"며 "한우자조금 또한 우리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우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

2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및 ‘후계자 육성교육’ 실시 한우산업을 이끌어 갈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한우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진행된 한우지도자 역량강화교육 및 여성 한우인과 청년 한우인을 대상으로 한 후계자 육성교육 통해 한우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맞춰 한 차원 높은 한우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한우 생산자 조직 관리 및 조직 역량 강화

지난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한 '한우지도자 역량강화교육(지도자, 여성, 청년)'이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실시되었다. 이번 교육은 민족문화 한우의 이해와 조직강화, 한우지도자로서 실천비전 수립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했다. 여성, 청년교육에 앞서 전날인 20일부터 이규석 초대회장을 비롯해 남호경, 이강우 전임회장과 도지회장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 임원 등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한우산업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는 산업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의 역량을 높여 한우산업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남호경 전 한우협회장이 특강을 진행해 지난 일을 회고하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조언을 당부했다.

남 전 한우협회장은 “한우협회가 생산자단체로서 자리매김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수입생우 반대운동, 원산지 표시제 시행, 한우자조금 출범까지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한우농가가 뚝뚝 뭉쳐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지금의 한우협회가 되기까지 한우산업 발전만을 위한 한우농가의 열정이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농가와와의 정보교류와 소통을 위해 한우지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한우농가 모두 힘을 합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신구범 전 축협중앙회장이 강단에 올라 한우산업의 굴곡진 역사와 농정정책의 변화 등을 알리며, 한우지도자로서 지역 한우농가를 비롯해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조직관리, 통합의 리더십, 농정패러다임의 전환과 국민행복 농정, 한국농업과 농정개혁의 과제, 현 정세와 한우인 권익실현의 비전과 전략 등의 강의를 통해 심도있게 교육을 진행했다.

여성·청년분과위원회 공식 출범

11월 21일 오후부터는 한우지도자역량교육을 비롯해 여성, 청년분과 교육도 각기 진행됐다. 여성 한우농가 90여명, 청년 한우농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과 통합의 한우리더 관계형성 ▲행복경영과 한우리더의 몸살림 ▲청년한우인의 역할과 기대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한 후 여성·청년분과 구성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교육프로그램은 농촌지역리더로서의 핵심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식(knowledge), 기술(skill), 가치(value)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생산자조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운영을 담당하는 지역리더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분과별 협의를 통해 초대 위원장으로 김영자 여성분과위원장, 장성대 청년분과위원장이 선출됐으며, 이후 발대식을 통해 공식출범을 알렸다. 김영자·장성대 위원장은 선서문을 통해 ▲우리는 한우가 가진 공익적 가치를 더욱 증진시키고, 민족산업으로서 자리 잡는데 앞장선다 ▲우리는 민족산업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우인이 되는데 솔선한다 ▲우리는 한우산업이 경축순환농업의 바탕임을 자각하여 한우를 통해 농촌·농업을 일으키는데 매진한다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한우협회 여성분과·청년분과의 말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향후 여성 한우인 권익 대변활동, 정보 교류, 한우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 등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청년한우분과위원회 또한 한우후계자 중심의 권익 대변 활동과 정보교류, 후계자 육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의 권익대변을 위해 여성, 청년 한우농가의 조직이 더없이 절실하며, 여성분과, 청년분과 발대식이 너무나 뜻깊다”며, “여성·청년분과위원회의 강한 의지를 이어받아 더욱 힘차게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니 인터뷰

한우산업 내 여성의 역할이 중요한 현재 여성분과 위원회가 구성되어 감회가 새롭다. 그동안 협회의 정책사업은 한우를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삶의 질 향상에 정책의 중점을 맞춰 조직을 이끌어 가고 싶다.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의식교육을 시작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자 여성분과위원장**

청년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 협회가 젊어졌다는 생각도 들고, 청년분과가 협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 같아 기대도 크다. 그동안 정보 교류가 원활하지 않았는데 청년분과는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 정책과 협회의견 등을 빠르게 공유하겠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문제에 대해 청년분과가 고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장성대 청년분과위원장**

한우산업 발전간담회

22일에는 '한우지도자와 여성·청년한우인 한우산업발전간담회'를 개최해 한우산업의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과 천행수 축산환경자원과 주무관이 참석해 퇴비부숙도 의무화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 천 주무관은 “농가 교육을 위해 매뉴얼 제작 후 농·축협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세부 관리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 중이며, 12월에 농장에서 쉽게 쓸 수 있게 체크리스트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퇴비사 증개축을 막은 지역에는 환경부에서 공문을 시행해 조례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퇴비부숙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검토할 방침이며, 퇴비사를 더 설치하고 싶은데 건폐율 때문에 안되는 경우는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며, 축종별 분노 특성을 감안해 검토할 것을 밝혔다. 🌻



3



‘2019년도 한우농가 해외연수’ 독일·프랑스 방문 축산선진국에서 배우는 선진 축산기법

국민소득 증가와 건강한 먹거리 열풍에 따라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우리 한우농가가 그에 따른 전략을 마련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한우농가 해외연수를 추진해오고 있다. ‘2019년 한우농가 해외연수’는 총 3차에 걸쳐 독일과 프랑스 방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3차에 걸쳐 한우농가 93명 참여

유럽의 축산 선진국에 방문해 축산 트렌드 및 선진 축산 기법을 알아보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한 ‘2019년도 한우농가 해외연수’가 진행되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진행된 해외연수는 1차 10월 29일~11월 5일(32명), 2차 11월 5일~12일(31명), 3차 11월 12일~19일(33명)까지 총 93명이 참가했다. 해외연수에 참여한 한우농가는 6박 8일의 일정으로 독일 중·남부와 프랑스의 다양한 축산 관련 기관 및 시설을 견학하였다.

독일과 프랑스의 육우 농장과 유관기관 방문

연수단은 제일 먼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하이델베르크로 이동해 육우농장(Betrieb Jochen und Karin Schönleben)을 방문했다. 독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품종인 얼룩소(Fleckvieh) 품종을 사육하고 있는 육우농장의 자동화 시스템을 둘러보았다.

다음날은 뉘른베르크 지역의 육우농장(Markus Geppert)을 방문했다. 샤롤레종(Charolais)을 사육하고 있는 이 농장은 바이오 가스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소 분뇨를 통해 바이오 가스를 만들어 전기로 사용하고 있었다. 육우농장 견학 후 독일 육우협회(Rinderzuchtverband Franken e.V)에 방문해 독일 육우산업현황을 알아보며 다양한 축산기술을 벤치마킹했다. 협회는 가축, 사육을 촉진하고 회원사 관리뿐만 아니라 토지와 농업 전체를 유지하는데 주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육종 및 송아지 경매의 조직 및 구현, 회원 농장에서 보유한 모든 가축 품종에 대한 스타드북(족보)으로 유지, 사육 동물의 가계도 확보 및 사육 증명서 발급.



체계적인 육종 프로그램을 통한 품종별 목표 및 마케팅 제안, 번식, 수유, 축산 및 마케팅 문제에 대한 정보 제공, 미디어에서 가축 사육을 위한 광고는 물론 박람회 및 전시회 주최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의 연수 일정을 마친 연수단은 프랑스로 향했다. 프랑스 파리의 대형유통마트 모노프리(MONOPRIX)를 찾아 축산물들은 어떤 모습으로 진열돼 판매되고 있는지, 가격은 어떤지,



소비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축산물을 선택하는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랑스에서는 송아지 육성농장 (LA FERME DU MOUNIN)을 견학했다. 300헥타르의 목초지에서 자연방목으로 모든 소를 사육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농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경청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선진 마인드 함양 기대해

한우농가 해외연수는 한우농가들이 축산 선진국을 방문해 소고기의 생산·유통·가공 등의 현황을 탐방하는 것은 물론 축산 선진국의 신기술, 축산 관련 정책과 시스템 등에 대한 정보를 습득해 이를 우리 한우농가 운영에 벤치마킹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한우농가 해외연수를 통해 해외 선진 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고, 한우산업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우의 시장가치



향상과 품질관리를 위한 선진 전략과 경험 사례를 비롯하여 친환경 축산을 습득해 6차산업으로서의 가치 증대, 한우의 진정성과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선진 마인드 함양 등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해외연수에 참여한 한우농가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해 앞으로 더욱 우리 한우산업에 도움이 되고 발전된 모습의 한우농가 해외연수 사업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2019 한우농가 해외연수 일정

제1일	인천 출발 독일 도착
제2일	•하이델베르크 육우농장 방문 Betrieb Jochen und Karin Schönleben
제3일	•뉘른베르크 육우농장 방문 Markus Geppert •독일 육우협회 방문 Rinderzuchtverband Franken e.V
제4일	독일 출발 프랑스 도착
제5일	•파리 대형유통마트 방문 MONOPRIX
제6일	파리 도시 시찰
제7일	•파리 육우농장 방문 LA FERME DU MOUNIN
제8일	파리 출발 인천 도착

4



‘음식점 원산지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자 혼동 주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돼야



2008년 광우병 파동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육류 등을 식재료로 만든 음식물의 경우 원산지 표시 법령을 이행해야 할 음식점 등에 대해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표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많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전국한우협회가 주관하여 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10개 중 2.5개 업체 모호한 원산지 표시

전국한우협회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지난 10월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현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6~7월 서울 25개구에서 영업을 하는 한우 관련 음식점과 정육점, 인터넷 배달 음식점 등 524개소에 대해 방문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 대상의 24.6%에서 부정확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매업소 원산지 표시판 10개 중 2.5개는 모호한 원산지 표시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한우의 경우

식육 소고기의 종류를 생략하거나 수입산과 섞어 한우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다분하게 표기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2개 이상의 원산지를 섞음을 표시하지 않고 비율도 알 수 없도록 표기하거나 메뉴판에 교묘하게 수입육을 작게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악용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혼동 우려 표시 품목으로는 갈비탕 등 국물요리가 3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찜류28%, 구이류 26%로 나타났다. 특히 탕류의 경우 육수와 고기의 원산지에 ‘섞음’ 표시를 하지 않고 육수를 국내산 한우를 사용할 경우 원재료인 한우만 강조하며 고기는 수입육을 제공하는 기만적 표시가 주로 발견됐다.

표1 혼동표시 품목 실태

구분	빈도	%
구이류	49	26
불고기류	7	4
수육	6	3
찜류	53	28
탕류	75	39
총계	190	100

업종 중 배달 음식점 혼동 표시 가장 높아

업종별 실태는 음식점의 경우 전체의 26.1%, 인터넷배달업체 57.1%, 정육점 1%가 각각 혼동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음식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오인·혼동 표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인터넷 배달 음식점 14곳 중 오인·혼동 유발 표시를 한 곳은 8곳, 57.1%로 절반이 넘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전체 466곳 중 120곳, 26.1%가 원산지 표시에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한우와 수입 소고기 사용 여부를 제대로 알 수 없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됐다.

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는 산업 정책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소비자 정책”이라며 “표시제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역별 조사대상 업소 수 대비 혼동표시율은 서초구(50.0%), 용산구(46.2%), 서대문구(4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구로구(0.0%), 중랑구(8.7%), 성북구(10.5%), 강북구(13.3%)의 혼동표시율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2 업종별 혼동표시 실태

구분	혼동표시		총계
	정상	혼동	
유형	음식점	346(73.9%)	120(26.1%)
	인터넷	6(42.9%)	8(57.1%)
	정육점	43(99.9%)	1(0.02%)
총계	395(75.4%)	129(24.6%)	524(100%)

상호명은 한우, 원산지는 해외?

상호명과 원산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소비자 오인·혼동 사례다. 예를 들어 ‘한우곰탕’ 또는 ‘한우사골’이라는 상호명을 쓰면서 수입 소고기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다. 소비자는 상호명만 보고 한우 전문 음식점인 것으로 판단하지만 실제로는 수입 소고기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한우와 육우, 한우와 수입 소고기를 병행 표기하거나 주요 메뉴판과 별도 메뉴판을 따로 두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에 따르면 메뉴판 상단에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표시판 작성 예시

품목	원산지	음식명
쇠고기	국산(한우)	등심, 갈비찜
쇠고기	호주산과 국산(육우) 섞음	불고기 전골
쇠고기	미국산	갈비탕, 차돌박이
돼지고기	국산	생상겹살, 목살, 항정살
돼지고기	칠레산	냉동삼겹살
돼지고기	독일산	고추장삼겹구이
돼지고기	뼈(칠레산) / 고기(국내산)	돼지 갈비
돼지고기	칠레산과 국내산 섞음	돼지 갈비

표시하고 각 메뉴 아래에 별도로 ‘육우’로 표시해 원산지가 한우인지 육우인지 분간이 어렵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두 원산지의 소고기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 ‘+’나 ‘섞음’으로 표시해야 하나 대부분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조사 대상 524개소 중 한 가지 음식에 2~3개국의 원산지 육류를 혼합해 사용하는 경우는 129개소, 24.6%였으며 이들 중 +나 섞음 표시를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찜갈비만 해도 미국산은 3만 원대, 한우는 5~6만 원이기 때문에 원산지 오인·혼동 표시로 소비자가 원산지를 잘못 인지했을 경우 손실이 크다”며 “섞음 표시제도 역시 악용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회 등과 협의해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 제도 개선 도출해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혼동 또는 위장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5년 이내 다시 거짓 표시를 할 경우에는 형량하한제도를 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많이 침해된다는 생각이 든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우와 미국산 고기의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클 것”이라며 “혼동표시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함께 논의해 농림부나 농산물품질관리원,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소비자단체들이 관련 운동을 전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5

‘메가쇼 2019 시즌2’ 및 ‘코엑스 푸드워크’ 참여 박람회 참관객 입맛 사로잡아

주부들의 천국 ‘2019 메가쇼 시즌2’

지난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9 메가쇼 시즌2’에 참여해 관람객들에게 한우의 뛰어난 맛과 우수성에 대해 알렸다. 실속과 주부들을 위해 준비한 우리집에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열린 2019 메가쇼는 리빙, 키친, 푸드, 뷰티, 패션,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00여 개 기업이 관람객을 맞이했다.

박람회에는 관람객뿐 아니라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해 찾은 해외 바이어도 1만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뤘다. ‘일상의 행복, 한우’라는 주제로 꾸며진 한우자조금 부스는 박람회 내내 인산인해를 이뤘다. 우리 한우가 좋은 이유를 비롯해서 한우114, 한우유명한곳.com의 홍보, 한우고기가 수입쇠고기보다 월등한 이유 등을 커다란 벽면에 전시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우 불고기 시식과 함께 ‘한우 코뚜레 던지기’ 게임도 펼쳐졌다. ‘한우’하면 연상되는 ‘코뚜레’를 던져 고리에 걸면 되는 간단한 게임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줄을 선 방문객들이 전시장 벽면에 배치된 한우 관련 정보를 유심히 읽는 효과를 유도하였다.



맛한 식품 다 모여라! 코엑스 푸드워크

지난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엑스 푸드워크(제14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에도 한우 홍보 부스가 마련되었다. 국내외 최신 식품 동향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물론이고 국내외 식품업계 관계자들에게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에서 전 세계에 우리 한우를 알렸다. 코엑스 푸드워크는 매년 전 세계 30여 개국 약 1,000여개사가 참여하는 글로벌 식품 소통의 장이다.



불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했던 전시인 만큼 다양한 연령대의 방문객들이 부스를 찾았다. 수능이 끝나서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전시회도 구경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고3 학생들도 한우 홍보 부스를 찾아 웃음꽃을 피웠다. “시식할 것이 아무리 많아도 밤새 줄을 서더라도 한우는 무조건 먹어야만 한다”고 말해 이유를 묻자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한우는 한우니까요!!!” 소리쳐 주변 관람객들에게 유쾌함을 선물했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2019 코엑스 푸드워크 참가를 통해 한우의 맛과 우수성을 알릴 수 있었다”라며 “다양한 식품들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우리 한우와 트렌드를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6

‘2019년 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 결과 발표 부적격사료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시중에 판매되는 한우사료 25개를 대상으로 ‘2019년 제2차 사료성분 분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분석 결과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한우사료는 성분과 실제함량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등록성분 함량 미달사료는 적발되지 않아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전국한우협회의 도움을 받아, 시판 중인 배합사료, TMR·TMF사료를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성분과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의 지역별 분포는 충북 5개, 전북 6개, 경북 11개, 경남 2개, 울산 1개였다. 또한 사료 종류별로는 사협사료 24개, 농협계통사료 1개였다. 이번 분석된 사료들 중 함량을 위반한 사료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 큰 역할

한우자조금은 2014년부터 시판 중인 한우사료에 대해 포장지에 표시된

성분분석표와 실제 함량이 일치하는지 조사하는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운영해왔다.

△2014년 총 6회 177개 사료 △2015년 총 5회 107개 사료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2016년부터는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통해 한우농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도출되고 있다. 제품에 표기된 성분등록 사항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사료의 위생과 안전성 확보가 용이해졌다. 한 관계자는 “사료 성분 분석 조사를 통해 사료회사가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안전한 배합사료 생산과 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속적 사업 추진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에 기여할 것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료성분 분석조사 사업 추진으로 사료회사의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사료성분 미달에 의한 한우 농가의 피해를 방지하겠다. 이를 통해 한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7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13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당장 내년 3월 25일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지만 많은 농가가 알지 못하고, 검사 및 농가 적용 기반이 조성되지 않아 유예기간이 절실하다. 이에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가 후원하고, 이만희·임이자 국회의원 주최, 축단협·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이대로 좋은가’ 국회 간담회를 개최해 현실적인 어려움과 해결대책을 모색했다.

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3년 유예 절실

국회 간담회 개최사에서 이만희 의원(자유한국당, 영천·청도)은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축산농가와 현장에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정책은 농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으므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도 “당장 무리하게 제도 시행 시 농가의 과태료 처분 등 농가 피해 속출이 우려된다.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므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또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용 시기 연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이 환영사를 통해 “축산분뇨는 양질의 퇴비로 활용되며



경축순환농업에서 축산의 공익적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환경 보호라는 미명 아래 규제와 억압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과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고민이 필요하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농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희권 충남대 교수는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퇴비부숙도 홍보 부족과 시험연구기관 부족을 강조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조례제한 조정과 농가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간소화된 관리대상 양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분퇴비의 경우 화학비료에 비해 환경오염 경감효과가 크며, 생산비 절감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엽 축단협 사무총장은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농가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시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불 보듯 뻔하므로, 적용시기 유예와 교육·홍보 및 검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부장은 “정부는 법 시행에 앞서 농가 홍보 및 교육에 소홀했으며, 부숙도 측정기기의 정확도가 60%에 불과해 농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과 컨설팅 등 계도 중심의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부숙도 검사 적용 시기의 경우 국민과 환경단체 등의 부정적 인식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홍식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지원과 과장은 “농가 홍보 관련 지자체 공문을 보냈고, 애로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접수하고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전문가 TF팀을 갖춰 컨설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WTO 개도국 포기 규탄 ‘전국농민총궐기대회’ 진행

WTO 농업부문 개도국 포기 선언에 분개한 농민들이 전국에서 모였다. 지난 13일 전국한우협회를 비롯한 2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의 주최로 열린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 전국 1만여 명의 농민들이 집결해 현 정부의 농업말살 정책을 규탄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연단에 올라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하여 많은 농민들이 기대에 부풀었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가 농민을 버렸다”고 울부짖으며,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으로 300만 농민은 말할 나위 없이 참담한 심정이다. 농수축산물 수입안정제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농민이 뚫뚫 뭉쳐 대정부 투쟁에 나서 썩 다 얹어 버리자”고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농민단체는 이날 궐기대회를 통해 △농업 분야 재정 확대(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중 4% 이상 확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조 원 조성방안 제시) △공익형직불제 전면 시행(관련 예산 3조 원 이상 확보, 직불금 중심 농정 실현을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 및 국내 농산물 수요 확대 방안 △농민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기초농축산물에 대한 수입보장보험 확대 시행, 근본적인 수입안정대책 마련, 농작물재해보험 전면 개혁 등) △청년·후계 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부처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등 6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



나만의 개인비서? 5G가 뭐길래



아침 7시, 인공지능 스피커에서 알람이 울린다. 일어나서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자 거울이 체온, 혈압 등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여준다. 씻고 나오자 오늘의 날씨와 캘린더에 입력된 나의 일정을 반영하여 알맞은 옷을 추천해준다. 외출 준비가 끝났을 무렵 커피머신은 적절한 타이밍에 커피를 내려주며, 나는 커피를 들고 자율주행차에 타 이동시간을 즐긴다.



5G,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연다

구글의 '구글 어시스턴트'와 아마존의 '알렉사', 국내에서는 SK텔레콤의 '누구'와 KT의 '기가지니', 네이버, 카카오 등 음성인식 기반 인공지능 개인비서를 탑재한 단말기들을 알고 계시나요? 이제는 AI 개인비서가 가전제품에 탑재되면서 언제 어디서나 기기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집 안에 있는 기기를 쉽게 작동시키기 위해 별도의 리모컨을 이용하던 시기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리모컨이 없어도 음성으로 대형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도어락과 조명, 온도조절기 등을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더구나 AI 개인비서가 각 이용자의 특성을 알고 있어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조명이 켜지고 적절한 온도로 자동 조절되기도 합니다.

경계를 넘어서서 세상을 하나로 잇다

그리고 이는 집 안에서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자동차에서도 AI 개인비서가 본격적으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외출을 앞두고 자동차의 히터를 미리 작동시키고, 귀가할 때 차에서 집 안의 조명을 켤 수도 있죠. SKT도 이미 홈투카(Home-to-Car)서비스와 카투홈(Car-to-Home)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이처럼 5G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전제가 모든 사물이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성(connectivity)'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5G는 각 산업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연결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빠른 속도와 저지연성, 수많은 단말의 연동, 그리고 높은 보안성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즉,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필수 인프라가 되는 것입니다.

5G와 한우산업이 만나다

최근 한우산업에도 5G라는 테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현장에서 SNS에 애로사항을 게시하면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실시간 기술 컨설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부터, 한우의 수정 작기 파악, 질병 징후 감지, 발정 탐지, 체온 측정 등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IOT 기반 축우 관리 시스템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 한우산업에 들어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개발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능형 의사결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2세대 스마트팜을 실증·고도화하고, 지능형 로봇공장 등 3세대 스마트팜을 위한 융합·원천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5G 시대에 이용능력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는 대다수의 디지털 기기가 스마트폰과 연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스마트 미디어 이용교육이 필요할 것입니다. 📡



좋은 콜레스테롤은 따로있다!

좋은 콜레스테롤 vs 나쁜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그런데 반대로 혈관 속을 돌아다니며 찌꺼기를 흡수해 동맥경화를 예방해주는 콜레스테롤도 있다. 혈관 벽을 막아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혹은 반대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기도 하는 콜레스테롤의 두 얼굴. 건강한 콜레스테롤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HDL 콜레스테롤 vs LDL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막, 신경세포의 수초 등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콜레스테롤은 또 지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A, D, E, K 등의 흡수를 돕고 물에는 흡수되지 않는 지방을 녹이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 콜레스테롤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기도 하고 간에서 직접 합성되기도 한다.

우리 몸속에서 콜레스테롤이 이동하는 '핵심정거장'은 바로 간이다. 음식을 통해 들어온 콜레스테롤은 모두 간으로 들어가 저장되고 우리 몸 곳곳에서 필요로 하는 콜레스테롤도 모두 간에서 출발해 혈관을 타고 신체 조직에 도착하게 된다. 이때 간에서 혈액으로 나오는 콜레스테롤을 LDL(Low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 반대로 혈액을 타고 돌아와 간으로 들어가는 콜레스테롤은 HDL(High 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이라고 한다. HDL 콜레스테롤이 바로 건강한 콜레스테롤이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을 타고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간으로 돌아오는데, 이 과정에서 혈관에 쌓여있던 불순물들을 우리 몸의 해독창고인 간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 속 찌꺼기들인 여분의 지질, 콜레스테롤 등을 흡수해 간으로 운반한다. 간에서 이 같은 물질들을 분해하고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나와 혈액을 타고 우리 몸 곳곳으로 이동하는 콜레스테롤이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혈전을 생성해 혈관 벽을 막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혈액 내에 많이 쌓이는 것을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고지혈증은 혈관 속을 흐르는 피의 흐름이 좋지 않아 고혈압,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을수록 좋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을수록 건강에 이롭다고 볼 수 있다.

나쁜 콜레스테롤 낮추는 '한우!'

우리 한우에 많이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이 바로 '올레산'이다. 한우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연구를 통해서도 검증이 되었다. 올레산은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동맥경화 및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생활습관

HDL 콜레스테롤은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높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루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하면 혈액 내 지질 분해 효소가 활발해지면서 HDL 콜레스테롤 품질과 수치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레스테롤 관리 기준 수치

구분	정상	경계	위험
콜레스테롤	200 미만	200~239	240 이상
HDL 콜레스테롤	60 이상	-	40 미만
LDL 콜레스테롤	130 미만	141~159	160 이상

11월 한우가격 및 출하·사육 동향

11월 한우가격 및 출하 동향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2019년		대비(%)	
					10月	11月(A)	10月(B)	11月(C)	C/A	C/B
도축두수(두)		737,474	742,536	736,363	33,793	44,502	53,184	45,410	2.0	-14.6
경매두수(두)		395,253	401,591	399,763	18,879	24,570	33,986	25,314	3.0	-25.5
도매시장 경락가격 (원/kg)	평균	18,116	16,719	17,772	17,467	17,663	18,300	18,262	3.4	-0.2
	거세우	18,941	17,710	18,735	18,237	18,197	19,203	18,878	3.7	-1.7
	비거세우	15,263	12,108	12,813	11,816	13,814	12,444	13,921	0.8	11.9
가축시장 거래가격 (천원/두)	암소	5,809	5,404	5,659	5,552	5,769	5,665	5,856	1.5	3.4
	송아지	암	2,902	2,919	3,130	3,139	3,191	3,271	2.5	0.5
		수	3,583	3,572	3,857	3,670	3,819	4,046	4.2	-1.6
소비자가격 (1등급, kg/원)	등심	78,683	79,663	81,551	84,323	83,099	89,369	90,431	8.8	1.2
	양지	55,530	55,990	55,390	56,775	56,564	56,256	57,357	1.4	2.0
	설도	-	-	-	-	-	43,517	43,901	-	0.9

* 전국경락가격: 전국 13개 도매시장 가격(원/지육kg), 결함제외 가격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 기준일: 11월 1일~11월 25일

10월 한우육질 등급별 도매시장 경락가격

* 단위: 원/kg

등급	거세	암소	수소	평균
1++	20,587	22,029	19,369	20,742
1+	19,130	20,089	-	19,314
1	18,023	18,040	17,189	18,029
2	15,639	15,566	16,168	15,595
3	12,547	12,897	13,121	12,884

* 기준일: 11월 1일~11월 25일

〈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수소(거세포함) 월령별 한우 사육현황

월령	28개월령 이하	29개월령	30개월령	31개월령	32개월령 이상
두수	988,480두	34,170두	32,500두	22,858두	28,251두

* 기준일: 2019년 10월 31일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

가임암소 두수(15개월령 이상): 1,486,552두 / 총 암소 두수: 1,964,781두(2019년 10월 31일 기준)

총 한우농장 수: 89,783호(2019년 10월 31일 기준)

한우 비즈링

무료통화연결음

한우자조금에서 비즈링(컬러링)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우자조금 사이트 www.hanwooboard.or.kr에 방문하셔서

메인화면 '알림·홍보' ▶ '홍보자료' ▶ '한우송 듣기' ▶ '비즈링 신청'

▶ **신청서 작성**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차후 비즈링 해지는 소비자센터 1544-3205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번호·통신사 변경 시 비즈링이 자동 해지되오니
한우자조금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신청 부탁드립니다.듣기 좋고
귀여운
비즈링~
친구·지인들이
좋아해요~HANWOO
BIZ
Ring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웹진으로 만나는 방법!

한우자조금 소식지를 아래 4가지 방법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PC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우자조금 웹진'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네이버나 다음 포털 주소창에 한우자조금 웹진 주소(www.hanwoonews.com)를 입력하세요.

세 번째 방법!

QR코드를 스캔하세요. QR코드 스캔 방법은 네이버 창을 연 후 검색창 옆의
카메라 모양(📷)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방법!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hanwooboard.or.kr)에서 소식지 배너를 클릭하세요.

스마트폰 화면에 한우자조금 소식지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드세요!

안드로이드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 더보기' 클릭
- ③ '☰ 더보기'에서 '+ 홈 화면 추가'를 누르면 아이콘 생성 완료



아이폰

- ① 위의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웹진 화면을 엽니다.
- ② 웹진 <한우자조금> 홈 화면의 오른쪽 하단에서 '☰ 더보기' 클릭
- ③ '☰ 더보기'에서 'Safari로 열기'를 클릭
- ④ Safari의 하단 '공유'를 클릭한 후 '+ 홈 화면 추가'를 클릭하면 아이콘 생성 완료

푸짐한 선물이 팡팡! 웹진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응모방법

옆의 방법에 따라 핸드폰에 웹진 <한우자조금> 아이콘을 생성한 뒤,
웹진 이벤트 페이지 댓글에 한우 응원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쓰기 아래의 정보란에 정보를 남겨주셔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9년 12월 24일(화)까지

당첨자발표 2020년 1월호 한우자조금 소식지 및 개별 연락
문의 02-324-6852

지나호 당첨자

한우육포
조영민, 임정현

한우곰탕세트

주미자, 홍경석, 노미선, 이수인

한우불고기버거

최은실, 고복자, 최성진, 신현영



모두가 좋아하는 영양만점 간식
〈한우육포> 2명



뜨끈하고 든든한
〈한우곰탕세트> 7명



두툽한 한우패티가 버거 속에
〈한우불고기버거> 10명

※ 사진은 이미지입니다.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5만 원 이상 경품에 대해서는 한우자조금 소식지 협력사인 디자인신화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며, 제세공과금 납부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